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JULY 2024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47



6월 골프대회를 마치고

2024년 6월 6월 Pelham Bay & Split Rock Golf Course에서 참가자가 비교적 많은 45명으로 골든클럽 골프모임을 가졌다. 당일 비소식은 있으나 비가 올 확률이 적었다 그리고 많아졌다 하며 일기에 보자 상당히 변화무쌍하였고, 하루전 오후에는 비가 올 확률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나 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일 오전에는 비가 올 가능성은 많아졌고 비의 양도 많게 되었으나 이미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전반까지는 비가 전혀 오지 않아 다소 안심하였으나 전반이 넘어가면서 먹구름이 짙게 끼더니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 부었다. 더 이상 행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골프 라운딩을 끝내지 못하여 시상을 할 수가 없었다. 비가 조금 오고 지나갔으면 골프 라운딩은 마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행사였다. 회원들은 라운딩을 마치지 못하였음에도 즐겁게 지내는 모습에서 참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다. 이번 골프대회는 구순을 넘기신 권태전, 임호순, 김영덕 선배님의 참가로 골프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셨다.

골프장으로부터 9홀 Rain check을 받았고 Shot gun형식으로 하는 다음행사에는 사용하지 못하여 노래 장기자랑을 하는 회원에게 선물로 사용하였고, 5명의 회원이 열창한 노래를 통하여 행사를 끝내기 전에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7월에도 이같이 많은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가족 피크닉 안내



작년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여름 피크닉을 올해도 Alpine Pavillion에서 열게되었습니다. 올해는 가족피크닉으로 확장해서 회원뿐만 아니라 가족들 특히 손주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각종 게임과 장기 자랑외에 특히 손주들이 그동안 갖고 딱은 재주를 선보이는 시간으로 참석하는 손주들에게 풍성한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께서도 이날 가족피크닉이 좀더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음식과 진행, 등 여러가지면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주시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니 많은 도움 바랍니다.

날짜: 8월 22일 목요일 11시 - 3시

장소: Alpine Pavillion

Address: Alpine Approach Rd, Alpine, NJ 07620
(Palisades Parkway exit 2에서 Boat Basin쪽으로 내려감)

문의: 김정필 (201-965-7759)

회비: 없음



7월 골프대회

2024년 7월 골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장소는 뉴욕과 뉴저지 회원 모두 접근이 용이하고 저희에게 shotgun을 제공하며 같은 장소에서 풍성한 저녁을 준비해주는 Split Rock Golf Club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기대합니다.

일시: 2024년 7월 11일 목요일 11:00 (Shotgun 방식)
10시까지는 도착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장소(저녁 포함): Wallkill Golf Club
40 Sands Rd
Middletown, NY 10941

회비: \$120

등록: 김병순 (kbs8717@gmail.com/703-407-4928)

7월 하이킹 안내



저희가 살고있는 미동부 뉴욕지역은 그리 높지 않고 아름다운 Harriman-Bear Mountain 산군이 가까이 있어 하이킹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하이킹도 무리하지 않은 등산로를 선택하였으니, 항상 안전 산행에 최선을 다하면서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집결장소로 오기 불편한 분은 Trailhead로 직접 오셔도 됩니다.

일시: 7월 18일(목) 9시

집결장소: PIP exit 4-5 Commuter Parking Lot
GPS 좌표, 41.0282, -73.9388)

Trailhead: 9시 30분, Reeves Meadow Visitor Center
(GPS 좌표, 41.1738, -74.1686)

준비물: 등산화, 하이킹 폴, 음료수와 간이 도시락
(하산후 Pizza Pit에서 뒤풀이 합니다.)

Pizza Pit; 57 Orange Turnpike, Sloatsburg

문의/ 참가신청: 홍종만

646-342-2667, hong1945@gmail.com



Shot gun 출발을 기다리며



6월 27일 하이킹



골프장에서 저녁후에 열린 가라오케



하이킹에 참석한 홍예경 최병우 오용호 이석구 홍종만 회원



정해민 고문 내외는 6월 16일에 거행된 손자 Nicky Pyun의 Stanford University의 졸업식에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Nicky군은 졸업전부터 Apple사의 인턴으로 입사하였다고 한다.



뉴욕동창회 임시총회 개최

6월 20일 낮12시 Fort Lee에 있는 동보성 별실에서 모두 23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뉴욕동창회의 임시총회가 열렸다. 그 모임에서 차기 뉴욕동창회장으로 김정필 동문을 선출하고 45대 동창회의 회계 보고와 감사보고를 받고 승인하였다. 김 신임회장은 차기 제1부회장으로 김병순 동문을 소개하고 80년대 학번중심으로 동창회를 운영하여 차기에는 80년대 학번들이 동창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bridge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연영재 회장은 동창회 행사에 와인기증등으로 항상 많이 도와주신 송학린 선배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2024 6월 골프대회 결산		
수입		
	참가비 (45명)	\$5400
지출		
	골프장	\$4906.05
	점심	\$326.00
	Tip	\$100
	지출계	\$5332.05
잔액		\$67.95

김병순 (사회대 경제학 1982) 회원과의 대담

■ 대담 및 정리: 김영천 (약대72)

가족관계:

부모님이 경남 밀양에서 부산으로 이주하여 터전을 잡으셨습니다. 집안 환경이 매우 궁핍하여 온 가족이 어렵게 생활했던 기억입니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추천을 통하여 진학했고, 사직동에 소재하고 신설된 학교인 동인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신설된 학교에 대한 관할 교육청의 지원이 아주 좋아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몰려 서울대학 진학생이 많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군대 문제도 해결하고 저의 적성에 더 부합하다고 생각한 카이스트 대학원 과정에 지원을 하였으나 1차 합격, 2차 불합격이라는 실패를 경험하고 비참한 심경으로 해병대 징집영장에 따라 군복무를 하였습니다. 제대 후 고향인 부산에서 행정고시를 준비하였는데 그 때 아내를 만났습니다. 행시 또한 1차 합격, 2차 불합격이라는 실패를 경험하였고 장기적인 행시 도전에 따른 인생의 비참함이 싫어서 산업은행으로 취직을 하였습니다.

저의 아내는 이대 법대에서 수학하면서 사법고시 준비 공부 중이었는데 고향인 부산의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 행시공부를 하고 있던 저와 사귀게 되었고, 아내의 집이 안양으로 이사를 하였지만 제가 산업은행에 근무하면서 교체를 지속한 결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5살 때 미국에 와서 생활하기 시작했고, University of Virginia에서 수학과 Computer Science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 현재는 Booz Allen Hamilton이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Booz Allen Hamilton의 컨설팅 대상 기관이 주로 정부여서 IRS, FBI 등이 사용하는 Software에 대한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영은행 근무중 다양한 해외 생활:

1991년부터 산업은행에 근무하면서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산업은행에 대하여 항상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4년에 5개월간의 스위스 연수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가 100일 막 지났을 때인데 너무 어린아이가 외국에 거주함에 따른 위험이 너무 커서 장인/장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둘이만 가게 되었는데, 제 2의 신혼여행 같은 기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가 지리적으로 서유럽의 중심에 위치하여 주변 유럽 국가들로 여행하기가 수월하였고 주말마다 열차를 타고 여행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후 1999년부터 2001까지 기간으로 미국학술 연수를 하게 되어 Washington DC에 소재하는 George Washington University에서 수학하여 MBA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

다. 미국학술연수를 마치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 가고 아내는 아들과 함께 미국에 남아 공부를 하게 되어 기러기 아빠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울 본점에 돌아가서 해외 발령을 받으려 노력하였고 미국이 아닌 싱가포르 현지법인으로 발령받아 2005년 봄부터 2008년 여름까지 3년 반 기간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아내와 아들도 싱가포르에 와서 같이 생활하였기에 기러기 아빠생활은 청산할 수 있었고 열대 지방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색다른 경험을 하였습니다. 3년 반의 싱가포르 근무 이후 저는 서울 본점으로 복귀하고 아내와 아들은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되어 당분간의 기러기 아빠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러기 아빠생활은 극히 좋지 않다는 생각으로 미국에 가서 살아야 한다고 결심하고 영주권 절차를 시작하였기에 기러기 아빠생활은 당분간이었습니다.

미국생활:

영주권 절차가 진행되어 막바지 즈음인 2010년 봄에 산업은행에 사표를 제출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하게 되었고 2010년 겨울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느냐의 질문에 대하여 저는 적성이나 은행 경력 등을 고려한 결과 CPA가 적합하다고 일찌감치 결정을 하고 준비하였습니다. CPA 시험은 기러기 아빠시절인 2003년 정도에 합격하였고 CPA License 및 향후 원활한 CPA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무경험이 필요하였

고 영주권 취득 이후 CPA Firm에 취업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서울대 선배이자 산업은행과도 인연이 있었던 Michael Kim 사장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2017년까지 Michael Kim 사장님의 지도하에 일한 후 하나의 Business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CPA Business owner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회계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아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어려운 환경에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9.11 이후 미국이 국수주의가 만연하게 되고 F-1 Visa라는 한계로 미국내 큰 규모의 CPA Firm에 Job을 얻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영주권을 취득하고 아들의 뒷바라지를 고등학교까지 마친 이후 CPA Office를 시작하여 아내 또한 하나의 CPA Business를 인수하여 저와 독립적인 CPA Business owner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동일한 계통의 일을 하고 있어 서로 도울 수 있고 정보 교환 등을 통하여 서로의 CPA Business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내가 장인/장모님의 무남독녀 외동딸이어서 장인/장모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같이 살게 되면 서로 불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선뜻 함께 살기 힘들었는데, 장인과 장모님 연세가 많이 되었기에 이제 같이 살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장인어른이 90 가까이 되신 2018년에 한국에 사셨



던 두분을 미국으로 초청하여 함께 살고 있습니다. 2021년 2월에 장 인어른은 돌아가시고 현재 장모님만 모시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

모태 신앙은 아니지만 아내의 영향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 후 한국/싱가폴/미국 어느 곳에 살든 꾸준히 교회를 계속 다녔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버지니아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를 다녔고 뉴저지 이주 후 필그림(선교)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항상 신앙적으로 부족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시무 집사 그리고 시무 장로의 교회 직분을 받아가며 더욱 더 나 자신의 신앙적인 부분들이 갖추어지고 성장하는 것을 느낍니다. 현재 교회에서 교육부서 쪽을 맡고 있는데,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 보람도 있고 어린 아이들과 접촉하며 자기 자신의 마음이 더욱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참 좋다는 느낌입니다.

취미 생활:

가족들과 같이 여행하는 것을 즐깁니다. 매년 한 번씩 가족이 모두 해외여행을 하도록 하자고 아내와 결의를 다집니다. 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골든 클럽 및 서울대 동창 골프대회를 기대감과 함께 즐기고 있고 친구들과 그리고 가족들 과도 기회 있을 때 마다 라운딩을 즐기려 합니다. 요즘은 탁구에도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탁구 동호회를 만들어서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자주 참여하여 즐기고 있습니다.

아내가 오페라 혹은 뮤지컬 등 음악회 감상을 좋아하여 같이 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본인은 순수 Classic보다는 Pop과 어우러진 장르를 좋아합니다. 영화는 “친구”와 같은 의리, 인간미와 동료애 등이 있는 장르를 좋아합니다.

골든 클럽에 대한 생각:

저를 포함하여 젊은 동문들은 학교/지역 등 어떤 집단에 소속함에 따른 애착이 선배님들에 비하여 월등히 떨어져서 동문모임의 참여도가 낮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연배 차이가 많이 나는 선배들을 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적은 사람이고 서울대에 대한 긍지가 있어서인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입니다. 골든 클럽은 서울대 총동창회와 비교하여 매월 골프 모임도 하고 회보도 발행이 되고 장기적으로 거의 동일한 지도부의 관리로 인하여 결속력이나 단합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신조:

순수함을 추구하여 어떤 현상이든 행동이든 그 본래의 목적이나 방향과 부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숨기고는 엉뚱한 방법이나 사기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것을 싫어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도덕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사회법이던 도덕이던 사회에서 정한 룰을 어기면서 선량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싫어합니다.

자녀 교육:

물 흐르듯 자연의 순리를 따라 교육하고 자녀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 스스로의 장래를 결정하도록 노력합니다.

AI의 발전과 CPA의 미래 예측:

AI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가까운 미래에 없어지게 될 직업중의 하나가 CPA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AI는 어떠한 정해진 틀에 따라, 관련 개인 정보를 입력, 관리하고 일반적인 일을 처리하지만 CPA는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AI가 하기 어려운 맞춤형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회계 업무를 제외하고는 AI가 CPA를 100%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Answer from Copilot
“AI가 회계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AI가 회계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아니요. 인공지능(AI)이 우리의 업무에 더 통합됨에 따라 회계사의 역할은 변화할 것입니다. AI는 특정 회계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으며, 회계사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분석, 자문 및 전략적 의사 결정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회계의 미래는 인간과 AI가 협력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각자의 강점을 활용하여 최적의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다음은 AI가 회계사를 대체하지 않을 이유 세 가지입니다:

1. **보완적 증강:** AI는 회계사의 능력을 증강시킬 것이며, 그들이 더 높은 가치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체가 아닌 강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2. **AI 활용:** AI 소프트웨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회계사는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입니다. AI를 받아들이는 회계사는 역할을 강화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인간 판단과 해석:** AI는 반복적인 작업을 처리할 수 있지만, 인간의 판단, 해석 및 문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회계사는 데이터 분석 이상의 통찰력을 제공하여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AI가 회계 환경을 변화시키더라도 회계사는 그들의 전문 지식과 전략적 사고 능력으로 필수적입니다.

소통과 화합, 사회환원의 삶을 실천하는 빅애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운영... 회원 260명

■ 여주영 (명예회원)

세상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떠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한 말은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갈망하고 항상 무모하라” 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임종하기 전에는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더 즐기지 못한 것, 더 많이 도전하지 않았던 것 등을 후회한다고 하였다. 그의 이런 명언들이 아직도 울림으로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노년이 되어 살면서 마지막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보내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골든 클럽의 회원들은 대부분 70년대부터 한국을 떠나 미국에 이민 와서 모두 이 땅에 적응하고 성공하기 위해 많이들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힘든 삶을 살았다. 그리고 노력한 그 대가로 나름 크고 작은 결실을 맺고 그런대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잡스가 죽기 전에 한 말 그대로 생의 마지막에 후회하는 삶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 노년기가 되면 학력이고 외모고 성공이고 재력이고 모두 평준화가 된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내가 누구보다 더 배웠 건 더 가졌 건 별반 차이가 없고 크게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즉 노후에 누가 더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느냐가 관건이 될 뿐이다. 그렇다면 잡스의 말대로 인생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도록 생전에 하고 싶은 것 열심히 하고 생을 즐기면서 주위 사람들과 나누고 배려하면서 사는 삶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나는 그동안 열심히 이민생활을 해온 분들을 대상으로 남은 생을 보람있고 즐겁고 의미있게 살자 하는 뜻으로 지난해 9월 의미있는 모임을 하나 만들었다. 일명 아름다운 모임 빅애플(Big Apple)이다. 한마디로 소통과 화합, 그리고 사회에 환원을 취지로 한 친목 및 사회봉사 목적의 비영리 단체이다. 회원은 현재 260명. 애플은 뉴욕을 상징하는 로고로 회원 한 명 한 명, 즉 사과 260개 조각을 하나로 모아 큰 사과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빅애플은 온라인 오프라인 양대축으로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온라인 상에서 늘 함께 하면서 기회가 되는데로 같이 만나 즐기고 나누고 하는 삶을 실천한다. 지난 9개월전 처음 단독방을 개설하고 그 출발로 함께 만나 서로 상견례를 하고 이어서 음악회 개최로 회원들이 하

나가 되었으며, 새해 및 우리선타이 해맞이와 떡국모임으로 화합하며 우의를 다졌다.

음악회 개최때는 1만3000불의 기금이 모여져 행사를 치르고도 남아 현재 운영비로 쓰고 있다. 이 기금중에 빅애플의 취지대로 지난 연말 좋은 일을 하는데 재정이 어려운 2개 한인단체에 각각 1000달러씩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전문의 회원 세 분이 무보험자 한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건강검진 및 상담을 실시해서 크게 호응을 받았으며, 회원 백일장도 개최, 참여의식 고취 및 재능발휘의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 가장 큰 결실은 브롱스지역의 열악한 흑인학생들의 꿈인 한국 수학여행을 실현시켜준 것이다. 회원들이 너도 나도 자발 동참, 불과 이틀만에 1만6000불을 모아 학교측에 전달하여 학교측에서는 학생들의 한국 방문후 감사의 밤 자리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

지난 달에는 회원 대상 공원 하이킹 및 야유회를 갖고 참석자 모두 하나되는 기회를 가졌다. 이 행사를 위해서도 회원들이 후원금을 내놓아 화합하고 단합하는 기회를 만들었으며, 이번 6월1일에는 퓨전국악밴드 지화자팀을 초청해 문화공연을 함으로써 한인사회를 화합의 장으로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행사의 남은 수익금도 연말에 도움이 필요한 단체나 불우이웃에 전달할 계획이다. 빅애플은 일련의 뜻있는 행사들로 불과 개설 1년도 안된 단독방에서 한인사회로부터 주목을 받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골든 클럽 회원중에서도 (가나다 순, 존칭생략) 김영천, 김영덕, 계동휘, 배상규, 송학린, 이대영, 이진구, 정해민 등 여러분이 회원으로 초대돼 있다. 이 기사를 보신 후 희망하는 골든 클럽 회원이 있으면 초대해 함께 할 생각이다.

빅애플은 사회 각계각층의 서로 다른 성향의 회원들이 마지막 남은 삶을 후회하지 않도록 마음을 열고 서로 화합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나누고 배려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삶의 본보기를 그대로 실천해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화합과 단합을 통해 이웃봉사 실천의 성공사례로 남아 회원 개개인의 보람있는 삶은 물론, 아름다운 한인사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해 본다



이태리 북부의 돌로미티를 다녀왔습니다.

■ 홍종만 (공대64)

웅장한 암봉과 에메랄드빛 호수, 그리고 아담한 마을들이 조화를 이루는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북쪽은 Austria, 동쪽은 Slovenia, 서북지역은 Swiss와, 남부는 Adria 해에 접해있는 이곳은 등산, 하이킹, Mtn bike, 스키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습니다. Alps South Tyrol 에 위치한 돌로미티 산악지역은 1-2차 세계대전 때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으로, 오늘날에도 다양한 참호, 암벽동굴등 요새유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영토였지만, 1차세계대전으로 제국이 붕괴되면서 1918년 이태리에 공식편입 되었습니다. 2차세계대전중 1940년 독일이 이태리를 공격, 이지역을 점령했고, 1943년 이태리가 연합군에 항복하면서 독일이 직접 통치하다가, 1945년 2차대전 종결과 함께 이태리 영토로 반환되었습니다. 산행그룹12명이 열흘동안 방문했던 Dolomite와 Venice에서 찍은 사진 위주로 여행소감을 전합니다.



일대를 하이킹했는데, 입구부터 인산인해, 정말 많은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Tre Cime di Lavaredo 는 Dolomites 의 상징이자 진정한 경관 하이ไลท์인데 2009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세 개의 바위는 매년 많은 방문객을 매료시키고 있으며, 열은 회색 톤부터 불타는 듯한 빨간색까지 마법의 순간과 지울 수 없는 감각을 선사하는 색상의 광경을 감상할 기회를 갖게도 되지요.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 42,050m에서 Helm Elmo까지의 하이킹 Trail은 이태리, 오스트리아 국경선과 나란히 가고 있어 이태리에서 출발 했지만 오스트리아로 하산해도 무방하며, Elmo봉 정상 십자가 예수님 왼쪽에 이태리 국기, 오른쪽에는 오스트리아 국기를 걸어놓아 국경 분기점임을 일수 있게하지요.

Dolomite 여행을 마치면서 아드리아 해변의 수상도시 Venezia(Venice)에 들렀습니다. 118개의 작은 섬들이 400여개의 다리로 이어져 있으며 운하가 유일한 교통수단인 Goldola의 'Car-free city'는 아름다운 운하와 항구들로 Italy의 상징과도 같이 'Jewel of the Adriatic Sea'라고 불리며 엄청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지만, 늪지대 진흙바닥에 나무기둥을 세워 간척사업으로 이루어진 도시이다 보니 매년 조금씩 침하되고 있음이 오래전부터 해결과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첫날은 곤돌라를 타고 2,080m 고지까지 올라가, 하산하면서 끝없이 펼쳐지는 자연모장과 계곡 건너편 Dolomite 산군의 위용을 바라보면서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둘째날은 Lago di Braies 호수와 Rifugio Biella 오르는 산행을 하고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서 호텔에서 준비해준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도중에 Hut-to-hut 트래킹을 하느라 40LB 정



도의 배낭을 올려매고 꾸준히 올라오는 남녀 젊은이들을 만날때마다 부러움과 함께 덧없이 흘러보낸 세월이 무척 아쉬웠지요.

다음날은 Dolomite의 상징적인 3 Peaks



회원 명단 (111명 / 2024-6-25)

강교숙	김상만	배상규	윤상영	이흥빈	최학주 한민우 한영오 한태진/ 한용희 허유선 홍정표 홍종만/ 홍예경
강에드	김승호	성기로	윤재욱	임도혁	
강영선	김영덕	손갑수	윤종숙	임호선	
계동휘	김영만	손경택	윤현남	정도현	
고애자	김우영	손대홍/ 남종현	이강홍	정수일	
곽상준	김익성	손옥화	이민제	조달훈/ 조승자	
곽선섭	김정필	송근숙	이상원	정해민	
곽승용	김종욱	송웅길/ 송현자	이승준	조상근	
권문웅	김창수	송학린	이준	주상선	
권정덕/ 홍선경	김충정	송혜순	이대연	주재양	
권영대	김치갑	신진식	이대영	진봉일	
권태전	김태일	신응남	이영범	천병수/ 천종화	
금영천	김현중	오순문	이용대	최구진	
김광수	노승만	오영호	이위곤	최병우	
김광현	노용면	오인석	이전구	최순재	
김동건	민준기	우규환	이종대	최준희	
김문경	박기환	유무영	이종석	최진영	
김문언	박상원	윤선구	이행순	최한용	
김병순	박희병				

2024년 연회비 납부 명단 85명 / \$8500 / 2024-6-25

강에드	김상만	박희병	오인석	이종대	천종화	홍정표 [2025] 정수일
강영선	김영덕	배상규	우규환	이준	최병우	
계동휘	김영만	성기로	윤상영	이행순	최준희	
고애자	김익성	손경택	윤선구	이흥빈	최학주	
권문웅	김정필	손갑수	윤종숙	임도혁	최한용	
권영대	김종욱	손대홍	윤재욱	임호선	한민우	
권정덕	김한중	송근숙	이강홍	주상선	한영오	
권태전	김홍빈	송학린	이대영	정수일	한태진	
금영천	김현중	신응남	이상원	정해민	한용희	
김광수	남종현	신두식	이승준	조달훈	허유선	
김광현	노승만	신진식	이영범	조승자	홍지복	
김동건	민준기	오순문	이용대	조상근	홍선경	
김문경	박기환	오영호	이전구	진봉일	홍종만	
김병순	박상원	이위곤	이종석	천병수	홍예경	

2024년 후원금 기부 명단 (27명 / \$12,200/2024-5-25)

강에드 200	김한중 300	이강홍 200	정수일 300
계동휘 300	노승만 100	이위곤 100	정해민 1000
권정덕 300	성기로 500	이전구 1000	최상립 2000
금영천 300	손경택 1500	이종대 200	최준희 400
김광현 200	신두식 200	이준 100	한태진 500
김문경 200	신진식 300	이행순 200	홍종만 1000
김종욱 200	오영호 300	임호선 300	

2024년 입회비 납부 명단

한민우 200	이위곤 200
노승만 200	

발전기금 기부명단 (0명 / 2024-5-25)

이준행 10,000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 Golden Club**)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 Golden Club**,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입회비 \$200

단과대:

학과:

입학년도:

졸업년도:

연회비 \$100

전화번호:

Email:

후원금 (\$)

주소 (Home):

골든클럽 2024년 행사 일람 (2024-6-25)

1월	24일 (수)	Zoom 경제 세미나 (14명 참석)
2월	22일(목)	편집위원 운영위원 간담회
3월	21일 (목)	Hiking
	23일(토)	신년교례회 - Double Tree Hotel, NJ
4월	25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Golf Club (36명참가)
5월	23일 (목)	Hiking (6명 참가)
6월	6일(목)	Golf Outing - Split Rock Golf Club (45명참가)
	27일(목)	Hiking
7월	11일(목)	Golf Outing
8월	15일 (목)	Golf Outing
	22일(목)	골든클럽 피크닉 -Alpine Pavillion
9월	12일(목)	Golf Outing
10월	17일(목)	동창회 추계골프대회
11월	7일(목)	Golf Outing
12월	7일(토)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Double Tree Hotel
	9일-14일	Myrtle Beach Golf Trip
3월	22일(토)	2025년 신년교례회

골든클럽 당구 모임: 매월 첫째/셋째 금요일 오후 1시
Star Billiards, Palisades Park, NJ



7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강교숙 (간호73)
- 권정덕 (의대58)
- 김병순 (사회82)
- 김영만 (상대59)
- 김충정 (상대64)
- 김태일 (공대68)
- 송혜순 (사대62)
- 신두식 (의대58)
- 이용대 (약대63)
- 이종대 (약대65)
- 이흥빈 (의대57)
- 정수일 (대학원)
- 주상선 (공대73)
- 천병수 (공대70)

Zelle 사용안내: 골든클럽에 회비/후원금/참가비등을 Zelle 로 납부하실 분은 **keiusainc@gmail.com** (SNU Golden Club)에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 message란에 영문이름과 내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